

‘한집단’ 범주의 점화가 북한사람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

유연재 · 김혜숙

아주대학교 사회대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두 번의 실험을 통해 ‘한집단’ 범주의 의식적(연구 1)·무의식적(연구 2) 활성화가 북한사람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실험 결과, ‘한집단’ 범주의 점화는 북한사람들에 대해 보다 호의적인 감정(연구 1·2)과 호감도(연구 2) 및 특질평가(연구 2)를 일으켰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회정체이론이 집단간 편견 감소의 한 방안으로 제안한 재범주화가 상황에 의해 의식 속에 활성화되어 대상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효과가 주로 외집단에 대한 감정의 변화를 유발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이와 같은 한집단범주의 활성화 방안이 북한사람에 대해 보다 호의적 감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현실적 중요성과 의미를 논의하였다.

‘한집단’ 범주의 점화가 북한사람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

사회정체 이론(Tajfel, 1981)에 의하면, 한 개인의 자아존중감은 그 사람이 속해있는 집단에 의해 일부 형성되고, 따라서 내집단 선호는 집단과 연합되어있는 사람들의 자아존중동기를 반영한다. Tajfel(1981)은 집단구분시의 심리적인 과정은 “집단간의 사회비교과정을 통해 내집단의 상대적 위치를 높이고 그것을 개인의 자아존중감, 자아개념 혹은 자아정체감에 연결시키는 과정이며, 따라서 사회적 정체성의 개념은 정적이고 특이한 내집단의 이미지를 추구하는 욕구”와 연결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자기동일시(identification)의 강도는 그 사람이 속해있는 집단(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별하는 것에 관련된다(C. Kelly, 1988). 사람

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없어도 내집단을 선호하고, 또 내집단을 선호함으로써 불이익이 오더라도 내집단을 선호하려 한다(Brown, Collins, & Schmidt, 1988; Turner, Brown, & Tajfel, 1979). 이러한 사회정체이론은 자기범주화이론(Hogg & Abrams, 1988; Turner, 1985, 1987; Turner & Oakes, 1986)으로 발전했는데, 이 자기범주화이론은 사회정체이론을 확장한 것으로 집단형성에 필수적인 자기지각과정을 강조하였다.

Gaertner, Mann, Murrell과 Dovidio(1989) 그리고 Gaertner, Mann, Dovidio와 Murrell(1990)의 연구에서는 사회정체이론과 자기범주화 이론에 근거한 집단간 편파 감소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즉, 그들은 재범주화가 집단간 편파를 줄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Gaertner 등(1989)은 집단 구성원의 조직된 표상이 두 집단에서 한 집단으로 범주

화되면 이전에 외집단이었던 구성원들에 대한 편파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Gaertner 등(1989)의 연구에서는 여섯 명의 사람들을 각 세 명으로 구성된 두 그룹의 사람들로 나누어 어떠한 과제를 수행하게 한 후, 이들을 다시 하나의 집단, 두 개의 집단 혹은 여섯 명의 개인(집단 없음)으로 작업하는 경험을 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한집단' 조건에서 그리고 '개인' 조건에서 통제집단(즉, 두 개의 그룹조건)에서보다 더 낮은 외집단 편파를 보였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이전의 두집단을 한 집단으로 재범주화시키는 것이 편파를 줄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Gaertner 등(1989)의 연구에서 외집단에 대한 편파가 '한집단'의 경험을 통해 감소된 것은 순전한 인지적 표상의 재범주화에 의해서인지 혹은 집단작업 과정에서 서로 협동했기 때문인지가 모호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Gaertner 등(1990)의 후속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협동이 없이 한 집단 표상만으로도 집단간 편파가 감소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 성원간의 협동이 없이 재범주화만 조작된 조건이 추가되었다. 즉, 집단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도구나 복장의 통일성 등을 변화시켜 집단의 재범주화를 조작하였다. 그 결과, 두집단 조건에서보다 한 집단 조건에서 집단간 편파가 더 낮았고, 외집단 구성원을 더 호의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에 두집단 조건보다 한집단 조건에서 내집단 구성원을 덜 호의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두 집단간에 협동적인 상호작용이 없었을 때도 그러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사회정체이론과 자기지각이론이 제안하는 바대로 한집단 범주화가 집단간 편견과 편파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어떠한 대상에 대한 판단을 할 때에, 기억 속에 있는 여러 정보를 일일이 탐색하기보다는 미리 준비되어있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개념이나 정보에 의존하려 하는 경향이 있다(Tversky & Kahneman, 1973, 1974). Srull과 Wyer(1979)는 이전의 인지적인 활동에 의해 특질 개념이나 도식이 가용화되면 새로운 정보를 부호화하는 데 있어서 그 개념이나 도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가설을 검토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표적인물(target)을 평가하기 전에 피험자들로 하여금 "단어이해과제"를 수행하게 하여 적대성의 의미를 점화시켰다. 그리고 난 후에 모호하게 조작된 표적인물의 행동기술문을 읽게 한 다음, 그 기술문에 나타난 표적인물의 행동이 얼마나 적대적인지를 또 표적인물이 얼마나 적대적인 사람인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단어이해과제에서는 단어set에 포함되는 적대성의 의미를 띠는 단어와 중립적인 의미단어의 비율을 변화시켜서(20% : 80% 또는 80% : 20%) 제시하였다. 그 결과 이전에 활성화된 적대성관련 개념들의 수에 따라 표적인물의 행동이 적대적이라는 평가가 증가했고 또한 표적인물이 적대적인 사람이라는 평가가 증가하였다. 또한, 점화의 효과는 점화과제와 부호화되어야 할 자극간의 시간간격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함을 보였다. 이로써 Srull과 Wyer(1979)는 평가하기 전에 접하는 점화범주의 빈도 그리고 점화할 때와 평가할 때 사이의 시간간격이 점화된 범주가 표적인물을 평가함에 미치는 효과를 매개하는 데에 중요한 요인이 됨을 밝혔다.

Bargh와 Pietromonaco(1982)는 특질범주와 관련된 정보가 무의식적으로 제공되었을 때에도 그 범주에 대한 접근용이성이 증가하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들의 실험에서는 피험자들이 자극단어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빠른 속도로 자극단어를 제시하여 그 위치를 찾는 과제를 실시하였다. 이 과제를 통해서 피험자들은 적대성과 관련된 단어들에 노출되었는데, 일부 피험자들에게는 적대성과 관련된 단어가 20%가 포함되어 제시되었고 다른 피험자들에게는 80%가 제시되었고, 또한 일부 피험자들에게는 적대적 단어가 전혀 포함되지(0%) 않았다. 이 과제를 끝마친 후 피험자들은 명목상 다른 실험이라고 소개된 두 번째 과제에 참여하였다. 이 두 번째 과제에서 피험자들은 어떤 인물의 행동이 기술된 글을 읽고 그 인물에 대한 특질평정을 하였다. 이 글에는 그 인물의 행동이 적대적으로 기술이 되었는데 그 적대적인 행동의 원인이 상황 때문인지 아니면 행위자의 기질 때문인지를 추론하기 모호하도록 구성되었다. 그 결과, 글에 기술된 행동을 평정하는데 있어서, 적대성 단어가 80%의 시행수로 제

시된 조건에서 피험자들이 나머지 두 조건의 피험자들보다 기술된 행동이 더 적대적이며 더 부정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와 같이 Bargh와 Pietromonaco(1982)는 Srull과 Wyer(1979)의 연구 결과를 반복하면서, 한편 더 나아가 무의식적으로 제시된 사회적인 자극이 의식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즉, 범주가 역하의식적으로 제시되어 피험자가 이를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Devine(1989)은 고정관념 혹은 고정관념 범주가 역하의식적으로 활성화되어 후에 제시되는 대상 인물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이 의식하지 못하도록 자극의 위치를 찾는 과제를 사용하여 흑인에 대한 문화적 고정관념을 점화시켰다. 점화는 두 가지 수준으로 이루어졌는데, 흑인에 대한 문화적 고정관념을 활성화시키는 문항들이 전체 분량의 80%를 차지하는 것이 한 수준이고, 다른 한 수준은 흑인에 대한 문화적 고정관념을 활성화시키는 문항들이 전체분량의 20%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나서 모호하게 적대적인 행동이 기술되어 있는 행동 기술문을 읽게 하고 그 기술문에 나타난 행동이 얼마나 적대적인지를 피험자들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였다. 여기서 모호하게 적대적이란 것은 그 기술문에 나타난 행동이 적대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중립적인 행동으로도 해석될 수 있도록 조작하였다는 것이다. 그 결과 피험자들은 흑인에 대한 고정관념의 점화수준이 낮을 때(20%)보다 흑인에 대한 고정관념의 점화수준이 높을 때(80%) 행동기술문의 행동에 대해 더 적대적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고정관념을 점화시킬 때 Devine(1990)의 연구에서는 Srull 등(1979)과 다르게 피험자들이 의식하지 못하도록(즉, 역하의식적으로) 고정관념을 활성화시켰다. 역하의식적으로 범주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의식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 보다 가용한 범주의 활성화를 더 오래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Bargh와 Pietromonaco 1982).

이와 같은 사회정체 이론에 대한 연구와 범주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유추되는 한 가

지 가설은 '한집단'범주의 활성화가 외집단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Gaertner 등(1989, 1990)은 사회정체이론과 자기범주화이론에 근거해서 이전에 다른 집단에 소속되었던 사람들을 '한집단'으로 재범주화시키면 집단간 편견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Devine(1989), Srull과 Wyer(1979), 그리고 Bargh와 Pietromonaco(1982)는 언어적으로 범주를 점화시키면 그 범주의 활성화가 대상의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두 부류의 연구들을 통합할 때 유추되는 하나의 가설은, '한집단'이라는 상위범주를 활성화시키면 외집단 사람에 대한 평가가 좋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즉, 점화에 의해 상위범주가 하위범주보다 특출해 지는 경우, 상위범주에 의거한 사회정체가 부각되어 하위범주 구분에 의거한 외집단에 대한 편견 반응이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나라'라는 상위범주를 활성화시키면 한집단이라는 생각이 가용적으로 되어 상대적으로 외집단으로 간주되는 북한사람에 대한 평가가 좋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정체이론은 사람들이 외집단을 자신의 내집단으로 재범주화하여 포함시키거나 혹은 내집단과 외집단을 모두 상위범주 안에 포함시켜 재범주화하면 이러한 한집단 의식이 이전의 외집단이던 사람들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는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한집단의식이 활성화되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평가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한집단' 범주의 점화가 외집단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보다 긍정적으로 만드는 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러한 과정을 적용하여 북한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높일 수 있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2000년대의 우리 사회의 주요 과제중의 하나가 통일이고, 진정한 통일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사람들간의 심리적 화합과 통합이 필수적(전태국, 1999; 정진경, 1999)이 되므로 그 실제적 의미와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김혜숙·오승섭(1999)은 현재 남한 사람들(특히, 일반인)의 북한사람에 대한 호감도나 친밀감이 미국과 같

은 다른 외국인에 대해서보다 낮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차재호(1992)의 10년 전 조사의 결과를 반복하는 것이어서, 심리적 통합이 그만큼 어려운 과제일 수 있고 또한 이에 대비하는 준비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해 준다. 따라서 이러한 심리적 통합과 화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의 제시와 그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해 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심리적 통합을 위한 가능한 여러 심리학적 방안들 중, 사회정체 이론에 의해 외집단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된 재범주화 방법을 응용하고 이에서 더 나아가 이러한 '한집단' 범주를 머리 속에 가용적으로 되게 하여, 이러한 방법이 북한사람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증진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 가설은, '한집단'이라는 범주를 점화시키면 그러한 점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북한사람에 대한 평가가 보다 긍정적으로 될 것이라는 것이다. 즉, 남한이 고향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외집단인 북한사람들을 평정할 때에 '한집단' 범주가 점화되면, 북한사람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혹은 남한)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한집단' 점화에 의해 별로 영향받지 않을 것인데, 이것은 서울(혹은 남한)사람들은 이미 한집단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두 번의 실험을 통해 피험자들에게 '한집단' 개념을 점화시킨 후에 남한사람 혹은 북한사람을 평가하게 하였다.

연 구 1

연구 1의 가설은 '한집단'이라는 생각을 점화시키는 실험조건('한집단' 조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북한사람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리라는 것이다. 즉, '한집단'이라는 생각을 점화시키면 통제집단의 경우에 비해 북한사람에 대한 평가가 보다 긍정적으로 될 것이다. 그러나 서울사람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한집단' 범주의 점화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남한의 피험자들에 있어 서울 사람들

은 이미 한집단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설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 1에서는 '우리', '한민족' 또는 '한집단'이라는 생각을 점화시킨 후에 서울사람 혹은 북한사람에 대해 그 고정관념, 감정온도, 호감도 및 사회적 거리감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방 법

피험자 및 실험설계

피험자는 아주대학교에서 심리학개론을 수강하는 121명의 대학생으로 2(평가대상: 서울, 북한)* 3(점화 수준: '한집단' 조건, 중립조건, 비점화조건)의 여섯 조건중 한 조건에 무선적으로 배당되었다. 여기서 '한집단' 조건은 피험자가 지역민을 평가하기 전에 수행하는 점화과제에서 '한집단'의 개념이 포함된 문장이 전체 25문장 중 20문장이 포함된 것이며, 중립조건은 25문장 모두 중립적인 문장의 경우이고, 비점화조건은 지역민을 평가하기 전에 아무런 과제도 수행하지 않고 곧바로 지역민을 평가하게 하는 조건이다.

도구

연구 1에 사용된 도구는 점화를 위한 점화과제와 대상 집단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는 질문지이었다.

1) 점화과제

피험자들에게 '한집단' 개념을 점화시키기 위해 점화과제를 사용하였다. 점화과제는 뒤바뀐 문장의 어순을 바로 잡는 것이었다. '한집단' 조건에서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우리 민족은 '한집단'이라는 뜻이 내포된 문장을 전체 문장 25개중 20개(예: '충분하다 우리민족을 한글의 사용은 하나로 묶어주기에', '올림픽이 열렸다 우리 나라에서 1988년에')를 포함시키고 나머지 다섯 개의 문장은 중립적인 문장(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중요성이 스트레스예방의 요점은')으로 채웠다. 중립조건은 인지과제에서는 25문항을 모두 중립적인 문항으로 채웠으며, 비점화조건에서는 아무런 과제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 비점화조건은 대상을 평가하기 이전에 과제를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포함되었다. 점화과제에 사용된 문장들을 부록1

에 제시하였다.

2) 종속질문지

집단실체성 지각. 점화가 한집단의식을 일으켰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우리 나라의 집단실체성 지각에 대해 묻는 문항을 세 문항 포함시켰다. 여기에는 우리 나라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유사한지를 묻는 문항, 우리 나라가 통합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문항 그리고 우리 나라 사람들이 공동운명을 가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이 문항들을 9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9: 매우 그렇다)상에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성격특질평정. 의미미분척도 8문항(좋다 - 나쁘다, 지적이다 - 지적이지 않다, 사교적이다 - 비사교적이다, 성급하다 - 침착하다, 포용적이다 - 배타적이다, 순박하다 - 순박하지 않다, 개방적이다 - 폐쇄적이다, 믿을만하다 - 믿을만하지 않다)을 사용하여 대상 집단인의 특성에 대해 평정하도록 하였다. 평정할 때 9점 척도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호감도 평정. 대상집단인이 전반적으로 좋아할 만 한지에 대해 (1)'매우 좋아할 만하다'에서 (9)'전혀 좋아할 만하지 않다'까지 9점 척도로 묻는 문항과 대상 집단인에 대한 전반적인 호감도에 대해 (1)'전혀 호감이 가지 않는다'에서 '매우 호감이 간다'(9)까지 9점 척도로 묻는 문항을 포함시켰다.

감정온도에 대한 평정. 각 대상집단인에 대한 감정을 측정하는 감정온도문항(예: 서울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이나 감정을 온도로 표현한다면 몇 도나 되겠습니까?)을 포함시켰다. 감정온도 평가는 0도(차갑다), 50도, 99도(따뜻하다)까지 10간격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거리감 척도. 대상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는 다섯 문항(1.결혼이라도 하겠다, 2.혼인관계로 나와 인척이 되는 것을 환영하겠다, 3.이웃집 아이나 동생들과 놀게 하겠다, 4.데이트 상대로 삼지 않겠다, 5.한 집에 세를 주지 않겠다)을 '전혀 아니다(1)'에서 '매우 그렇다(9)'까지 9점 척도로 평가하는 문항을 포함시켰다.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북한사람을 평가하게 하는

조건에는 대북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평가하게 하는 다섯 문항(1.통일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2.북한에 식량원조를 하는 것이 좋다. 3.통일을 위해서라면 남한이 조금 못살 수도 있다. 4.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다. 5.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세금을 조금 더 낼 수도 있다)을 포함시켰다. 각각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한다(1)'에서 '전적으로 찬성한다(9)'까지 9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절차

우선 피험자가 오면 첫 번째 실험자는 피험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험자들에게 실험내용은 인지심리학실험으로 어순이 바뀐 문장을 바로잡는 과제라고 간략히 설명해 주고 과제를 실시하였다. '한집단'조건의 피험자들에게 주었던 점화과제는 '한집단'개념이 포함된 문장을 전체 25개중 20개 포함시켰다. '한집단'조건에 사용된 문장중 나머지 다섯 개의 문장은 중립적인 문장으로 채웠다. 중립조건의 점화과제는 모두 중립적인 문장으로 이루어 졌다. 비점화 조건에 배당된 피험자들은 중립 조건이나 '한집단' 점화조건의 피험자들과 달리 인지 과제를 수행하지 않고 곧바로 대상집단을 평가하게 하였다. 피험자들이 과제를 완성하면 첫 번째 실험자는 실험에 참여해 주어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실험은 이것으로 끝났지만 석사졸업 논문을 써야 하는 선배가 실험에 피험자를 구하지 못했으니 한번만 더 가서 피험자가 되어주면 고맙겠다는 부탁을 하였다. 피험자들이 승낙하면 두 번째 실험자가 있는 방으로 피험자들을 데려다 주었다. 두 번째 실험자가 피험자들을 두 번째 실험실로 맞으면 두 번째 실험자는 실험의 내용은 인상형성에 관한 것이라고 간략하게 설명해 준 다음 미리 준비했던 종속측정 질문지(각 대상집단인에 대한 인상평가)를 나눠주었다. 피험자들이 질문지를 다 작성하면 두 번째 실험자는 다시 한 번 실험에 참가해 준 것에 대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피험자들을 돌려보냈다.

결과

집단실체성(우리 나라 사람들의 통합성, 공동운명성 및 유사성) 지각에 대한 변량분석

'한집단' 점화과제가 과연 사람들에게 우리 나라라는 상위범주를 활성화시켰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실체성(즉, 우리 나라의 통합성, 공동운명성 및 유사성)에 대한 지각을 묻는 세 문항에 대한 응답을 평균하여, 이 평균값에 대한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상과 점화수준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경향성이 있었다($F(1, 115)=2.47, p<.09$). 각 대상집단별로 한집단 조건과 중립조건을 단순주효과 분석하고 한집단 조건과 비점화조건을 단순주효과 분석한 결과, 서울대상의 경우 '한집단' 점화조건($M=4.62$)과 중립조건간($M=5.33$)의 차이가 유의미한 경향성을 보였다 ($F(1, 115)=3.86, p<.06$). 그러나 가설과는 반대되는 방향이었다. 즉 한집단 점화를 시켰을 때 중립적인 점화를 시켰을 때보다 우리 나라를 덜 통합되고 덜 유사하며 공동운명을 덜 가진다고 평가했다. 서울대상에서 한집단 점화조건($M=4.62$)과 비점화조건($M=4.68$)간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북한대상에 대해서는 '한집단' 조건($M=5.13$)과 중립조건($M=4.73$)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한집단'조건($M=5.13$)과 비점화조건($M=4.40$)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 115)=3.97, p<.05$). 즉, 예상대로 '한집단'점화를 시켰을 때 점화를 시키지 않았을 때보다 집단실체성에 대한 지각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예상대로 적어도 북한대상을 평가할 때에는 '한집단'점화 조치가 성공적이었음을 보여 준다. 집단실체성 지각에 대한 지역별 점화수준별 평균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성격특질 평정에 대한 분석

1) 성격특질평정에 대한 요인분석

서울과 북한사람의 성격특질 평정 8개('지적이다', '사교적이다', '개방적이다', '포용적이다', '좋다', '침착하다', '순박하다', '믿을만하다')에 대한 주성분분석법과 varimax적교 회전 방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변량의 20%를 설명하는 첫 번째 요인 즉, '지적·사교성' 요인에는 '지적이다', '사교적

표 1. 집단실체성지각(우리 나라의 통합성, 공동운명성 및 유사성 지각)에 대한 지역별 점화수준 별 평균

지역 \ 점화수준	'한집단'	중립	비점화	평균
서울	4.62	5.33	4.68	4.88
북한	5.13	4.73	4.40	4.75
평균	4.88	5.03	4.54	4.82

이다', '개방적이다', '포용적이다'의 네 개의 항목이 포함되었고, 전체변량의 13%를 설명하는 두 번째 요인 즉, '믿음직성·순박함'요인에는 '좋다', '침착하다', '순박하다', '믿을만하다'의 네 개의 항목이 포함되었다.

2) 성격특질에 대한 요인별 변량분석

각 성격 특질 요인 별로 2(대상집단)×3(점화수준)의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적·사교성'요인에 대해 대상집단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F(1, 115)=157.29, p<.01$). 즉 서울사람($M=5.79$)을 북한사람($M=3.48$)에 비해 사교성이 높다고 평정하였다. '믿음직성·순박'요인에서도 대상집단의 주효과가 유의미해서($F(1, 115)=17.28, p<.01$), 북한사람($M=5.15$)을 서울사람($M=4.25$)보다 더 믿음직스럽다고 평가하였다.

전반적인 호감도에 대한 변량분석

전반적인 호감도를 묻는 문항과 대상이 얼마나 좋아할 만한지를 묻는 문항 두 문항을 평균해서 평균값에 대한 변량분석을 했으며, 변량분석 결과 아무런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감정온도에 대한 변량분석

감정온도평정에 대한 분석 결과, 대상집단의 주효과가 유의미해서($F(1, 115)=4.07, p<.05$) 북한사람($M=47.66$)을 서울사람($M=41.27$)보다 더 호의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점화의 주효과가 유의미한 경향성을 보였다($F(1, 115)=2.67, p<.08$). 점화효과에 대한 단순주효과 분석결과, '한집단'조건($M=49.41$)과 중립조건($M=43.25$)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한집단'조건($M=49.41$)과 비점화조건($M=40.75$)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1, 118)=4.73, p<.05$). 즉,

‘한집단’ 점화를 시켰을 경우 점화를 시키지 않았을 때보다 평가대상에 대한 감정온도가 높았다. 그 다음 각 대상집단인 각각에 대해 점화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설과 일치하게 서울사람에 대해서는 ‘한집단’ 조건($M=43.33$)과 중립조건($M=41.00$)간에는 아무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F(1, 115)=0.18, p>.1$), ‘한집단’조건($M=43.33$)과 비점화조건($M=39.50$)간에도 아무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1, 115)=0.50, p>.1$). 반면, 북한사람에 대해서는 ‘한집단’조건($M=55.50$)과 중립조건($M=45.50$)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경향성을 보였으며($F(1, 115)=3.30, p<.08$), ‘한집단’조건($M=55.50$)과 비점화 조건($M=42.00$)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 115)=6.01, p<.05$). 감정온도 평정에 대한 지역별 점화수준별 평균이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사회적 거리감 척도에 대한 변량분석

사회적 거리감에서는 대상집단의 주효과가 유의미해서($F(1, 115)=6.60, p<.05$), 서울사람들($M=6.31$)을 북한사람($M=5.55$)에 비해 사회적으로 더 가깝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북정책 평정에 대한 변량분석

북한인 평정의 경우에만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이 대북정책 평가문항 5문항에 대한 응답을 요인분석했는데, 한 요인으로 묶였다. 따라서 다섯 문항을 평균해서 변량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아무런 유의미한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각 문항별 평균을 살펴보면 ‘통일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M=6.02$), ‘북한에 식량원조를 하는 것이 좋다’($M=6.25$), ‘통일을 위해서라면 남한이 조금 못 살수도 있다’($M=5.69$),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다’

($M=6.12$),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금을 조금 더 낼 수도 있다’($M=5.97$)이다.

논의

연구 1의 가설은 ‘한집단’점화를 시켰을 경우에 점화를 시키지 않거나 중립적인 문장들로 점화를 시키는 경우보다 북한사람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사람에 대해서는 이러한 점화의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 감정온도 평정에서는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즉, 서울대상의 경우에 ‘한집단’점화를 시켰을 때 점화를 시키지 않았을 때나 중립적인 점화를 시켰을 때와 그 평가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인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한집단’점화를 시켰을 경우 중립적인 점화를 시켰을 경우보다 감정온도 평정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고, 또한 ‘한집단’점화를 시켰을 경우 점화를 시키지 않았을 경우보다 감정온도 평정이 더 높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집단’사고를 활성화하는 것만으로도 상대적으로 외집단으로 간주되는 북한사람에 대해 더 따뜻한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조작점검으로 포함된 집단실체성지각(우리 나라의 통합성, 공동운명성, 유사성)에 있어서도 북한사람을 평가하게 했을 때에는 ‘한집단’조건과 비점화조건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서, 한집단 점화의 조작이 적어도 북한사람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예상했던 방향으로 작용하여 우리 나라를 더욱 통합적으로 지각하도록 한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한집단’범주의 활성화가 우리 나라를 통합된 하나, 한민족 혹은 전체로 지각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북한사람에 대한 감정이 보다 호의적으로 되도록 하였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집단’범주의 활성화가 성격특질에 대한 평정, 전반적인 호감도 혹은 사회적 거리감과 같은 평가에는 아무런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그 하나는 점화의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즉, ‘한집단’을 점화시키기 위해 사용된 점화문장들은 대

표 2. 감정온도에 대한 지역별 점화수준별 평균

지역 \ 점화수준	‘한집단’	중립	비점화	평균
서울	43.33	41.00	39.50	41.27
북한	55.50	45.50	42.00	41.27
평균	43.33	41.00	39.50	41.27

부분 우리 민족은 '한민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의도되었다. 그리고 평가하는 대상은 '서울사람'과 '북한사람'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 1에서의 점화과제에는 '한민족'이 아닌 '남한으로서의 우리 나라'라는 개념이 포함된 문장이 많았다(예를 들어, '한집단' 점화조건에서 사용한 '유지될 명성황후는 미국에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주었다', '우리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7년 전 수준인 6,800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 '독자적인 워드프로세서를 소유하고 있는 나라는 MS-word 외에 우리 나라 뿐이라고 한다',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우리 나라는 지역의 개념이 없어졌다', '우리 나라에서 1988년에 올림픽이 열렸다'). 즉, 이 문장들은 북한과 남한을 하나로 통합하여 '한민족'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나라'를 '남한'에만 국한시켜 생각하도록 하였을 수도 있다. 즉, 여기서 점화시킨 것은 '우리 나라' 즉, '남한'이지, 남한과 북한 전체를 의미하는 '우리 나라'가 되지 못하였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 이러한 점화의 내용을 보다 확실히 하여 남북한의 통합된 전체 혹은 한민족 등의 개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가를 '남한사람'이 아닌 '서울사람'으로 하였는데, 피험자들에게 '서울사람'이 반드시 내집단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한집단'점화의 효과가 감정온도에서만 나타난 것은 그대로 현실을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즉, 한집단의식이 활성화되어 우리 나라를 통합된 전체로 간주하게 되면 그 효과는 주로 외집단에 대한 감정을 좋게 하는 것이지 고정관념이나 특질지각에 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 결과는 사회정체 이론이 제안한 바 재범주화가 외집단에 대한 편견 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주로 외집단에 대한 감정반응을 보다 호의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인지적인 효과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연구 2에서는 이러한 의문점들을 보다 명확히 검토하고자 하였다. 즉, '한집단' 점화의 효과를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점화자극을 문장이 아닌 단어로 제시를 하고, 이 단어들은 '남한'을 의미하기보

다는 '한민족'임을 나타내는 단어들로 구성하였다. 또한 점화자극에 대한 피험자의 의식적인 통제를 막고 보다 직접적인 점화효과를 얻기 위해서 자극을 역하 의식적으로 제시를 하였다. 즉, 사람이 의식할 수 없는 수준의 빠른 속도로 자극을 제시해서 피험자들이 자극을 볼 수는 있지만 어떤 자극을 보았는지 자극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는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도록 '한집단'점화를 시키고자 하였다. 점화의 효과측면에서 역하의식적인 점화의 우월성은 Bargh와 Pietromonaco(1982)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역하의식적으로 범주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의식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보다 가용한 범주의 활성화를 더 오래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연 구 2

연구 2의 가설은 연구 1에서와 동일하다. 즉, '한집단'이라는 생각을 점화시키는 실험조건('한집단'조건)에서는 중립적인 점화를 시키는 조건('중립조건')에 비해서 북한사람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남한사람에 대해서는 이러한 점화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기술한대로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와는 달리 보다 직접적이고 확실한 점화효과를 얻기 위하여 점화자극을 단어형태로 역하의식적으로 제시를 하였다. 즉, 연구 2에서는 역하의식적으로 범주를 활성화시켜 의식할 수 없는 수준의 빠른 속도(80ms)로 점화자극을 단어형태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피험자들은 자극을 볼 수는 있지만 어떤 자극을 보았는지 자극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는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도록 '한집단'점화를 시켰다. 또한 연구 1에서는 종속측정에서 북한사람 혹은 서울사람을 평가하게 하였는데 평가 대상의 범주적 수준을 동일하게 하고자 연구 2에서는 북한사람과 남한사람을 평가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2에서는 한집단점화가 구체적으로 대상에 대해 어떠한 정서를 변화시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보다 세분화된 정서 측정 문항을 11문항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방법으로 연구 2는 연구 1에서의 제한점을 보완하였으며 또한 연구 1에서 더 나아가 역하의식적으로 활성화된 한집단의식이 외집단에 대한 평가를 호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방법

피험자 및 실험설계

피험자는 아주대학교에서 심리학개론을 수강하는 100명의 대학생으로 2(평가대상: 남한 대 북한)×2(점화수준: '한집단'점화 대 '중립점화')의 네 조건 중 한 조건(각 25명씩)에 무선적으로 배정되었다. 여기서 '한집단'조건은 피험자가 평가대상을 평가하기 전에 수행하는 점화과제에서 '한집단'의 의미를 포함하는 7단어를 역하의식적(80ms)으로 제시를 한 것이며 '중립'조건은 중립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7단어를 역하의식적으로 제시를 한 것이다.

도구

본 연구 2에 사용된 도구는 점화자극을 역하의식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컴퓨터를 사용하였으며, 또한 종속측정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1) 점화과제

피험자들에게 '한집단'개념을 점화시키기 위해 점화과제를 사용하였다. 점화과제는 17" Daewoo Pro Sense 컴퓨터 모니터 상에 제시되는 단어자극의 위치를 맞추는 것인데, 키보드의 특정한 키들을 사용하여 반응하도록 하였다. 실험조건('한집단'점화조건)에서는 '하나'라는 의미가 포함되거나 우리 민족이 한민족임을 의미하는 단어 7단어(즉, 우리, 한민족, 백의민족, 단결, 우리 나라, 겨레, 단군)를 모니터의 정 중앙을 중심으로 왼쪽이나 오른쪽에 무선적으로 제시하였다. 통제조건('중립'점화조건)에서는 중립적인 단어 7단어(즉, 나무, 마루바다, 사람, 학교, 종이, 손가락, 그림자)를 모니터의 정 중앙을 중심으로 왼쪽이나 오른쪽에 무선적으로 제시하였다. 제시 속도는 Bargh와 Pietromonaco(1982)와 동일하게 사람이 의식할 수 없는 수준의 빠른 속도(80ms)로 제시하였다.

2) 종속측정치

연구 2의 종속측정치(즉, 집단실체성 지각, 성격특질평정, 호감도, 감정온도 및 사회적 거리감 평정)은 연구 1과 대부분 같다. 연구 1과 다른 점은 연구 2에서는 조작점검을 위해 집단 실체성 지각(우리 나라 사람들의 유사성, 통합성 및 공동운명성)을 묻는 문항 외에 대상이 피험자 자신과 얼마나 유사하다고 보는지를 평가하는 문항(9점 척도로 평정 1: 전혀 유사하지 않음, 9: 매우 유사함)을 포함시켰다. 또한 평가대상에 대한 세부 정서적인 측면도 알아보고자 정서측정을 하는 11문항을 포함시켰다. 이 문항들은 평가대상에 대한 감정을 묻는 11문항('불안하다', '혐오스럽다', '불쾌하다', '불쌍하다', '슬프다', '즐겁다', '그림다', '정이 간다', '화가 난다', '불편하다', '존경할만하다')들로, (1)'전혀 아니다'에서 (9)'매우 그렇다'까지 9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절차

일단 피험자가 오기 전에 실험자는 피험자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작은 글씨로 모니터 위에 피험자가 배당된 조건의 번호를 적어 두었다. 그리고는 피험자들이 배당된 조건에 맞게 컴퓨터에 점화과제를 실행시켜 두었다. 그런 후에 피험자가 오면 실험자는 피험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도록 하였다. 실험자는 피험자들에게 실험내용은 인지심리학 실험으로 자극의 위치가 반응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며 피험자들이 할 일은 모니터의 왼쪽이나 오른쪽에 무선적으로 제시되는 단어의 위치를 키보드를 사용해 반응하는 과제라고 설명해 주었다.

실험조건('한집단'점화조건)의 피험자들과 통제조건('중립'점화조건)의 피험자들은 모두 같은 절차를 거쳤는데,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점화자극의 내용이 달랐다. 즉, 실험조건('한집단'점화조건)의 피험자들에게는 '하나'라는 의미가 포함되거나 우리 민족이 한민족임을 의미하는 단어 7단어를 무선적으로 제시하였고, 통제조건('중립'점화조건)의 피험자들에게는 중립적인 단어 7단어를 제시하였다.

피험자들에게 제시하였던 점화자극과 피험자들의

구체적 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자극은 모니터의 중앙에 표시된 'X'자를 기준으로 왼쪽이나 오른쪽에 무선적으로 제시가 되었다. 피험자들은 그 X자에 초점을 고정하고 있다가 자극이 제시가 되면 그 자극의 위치를 맞추는 것이었다. 자극이 제시되고 나면 "자극이 어느 쪽에 나타났습니까?"라는 문장이 제시되었다. 피험자들은 자극이 오른쪽에 제시되었다고 생각되면 " ' '키를 눌러서 반응하도록 하였고 자극이 왼쪽에 제시되었다고 생각되면 'a'키를 눌러서 반응하도록 하였다. 피험자들이 반응을 한 다음에는 다시 모니터의 중앙에 X자가 제시되었다. 피험자들이 이 X자가 나타난 후에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다음 자극이 제시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험자들에게 모두 49번(즉, 동일한 단어를 각 7번씩 제시함)의 자극의 위치를 찾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험자들에게 자극이 순간적으로 제시가 되니 모니터에 집중하도록 주의를 주었고 가능하면 빠르게 반응을 하도록 하였다.

피험자들이 점화과제를 모두 수행하면 실험자는 실험에 참여해 주어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실험은 끝났지만 실험자의 지도교수님이 하는 다른 연구에서 피험자를 구하지 못했으니 수고스럽지만 한 번만 더 실험에 참여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험자들이 승낙을 하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종속측정(그러나 피험자들이 알고 있기로는 두 번째 실험)을 시행하였다. 이 종속측정(즉, 피험자들이 알고 있는 두 번째 실험)에 대해서 실험자는 '사회심리학 실험으로 한 지역인에 대한 인상을 평가하는 실험'이라고 설명하고 실험 전에 적어 두었던 조건 번호에 맞추어 남한사람에 대한 종속측정 혹은 북한사람에 대한 종속측정 질문지를 나누어주었다. 피험자들이 종속측정 질문지를 다 완성하면 실험에 참여해 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피험자들을 돌려보냈다.

결과

1. 요인분석

성격특질평정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남한과 북한사람에 대한 성격특질평정 6개('지적이

다-지적이지 않다', '비사교적이다-사교적이다', '성실하다-성실하지 않다', '배타적이다-포용적이다', '순박하다-순박하지 않다', '개방적이다-폐쇄적이다')에 대해 주성분 요인분석과 varimax회전을 실시한 결과 세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전체 변량의 17%를 설명하는 첫 번째 요인 즉, '지적·사교성'요인에는 '지적이다', '사교적이다'의 두 개의 항목이 포함되었고, 전체 변량의 15%를 설명하는 두 번째 요인 즉, '배타·폐쇄성' 요인에는 '배타적이다', '폐쇄적이다'의 두 개의 항목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변량의 13%를 설명하는 세 번째 요인 즉, '성실·순박'요인에서는 '성실하다', '순박하다'의 두 개의 항목이 포함되었다.

정서측정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남한과 북한사람에 대한 정서측정 문항 11개('불안하다', '힘오스럽다', '불쾌하다', '불쌍하다', '슬프다', '즐겁다', '그립다', '정이 간다', '화가 난다', '불편하다', '존경할만하다')에 대해 주성분 요인분석과 varimax회전을 실시한 결과 세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전체 변량의 26%를 설명하는 첫 번째 요인 즉, '부적정서' 요인에는 '불안하다', '힘오스럽다', '불쾌하다', '화가 난다'의 네 개의 항목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전체 변량의 24%를 설명하는 두 번째 요인 즉, '긍정적정서' 요인에는 '즐겁다', '그립다', '정이 간다', '존경할 만하다'의 네 개의 항목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전체 변량의 23%를 설명하는 세 번째 요인 즉, '동정·불편 정서'요인에는 '불쌍하다', '슬프다', '불편하다'의 세 개의 항목이 포함되었다.

2. 변량분석

집단실체성 지각(우리 나라 사람들의 유사성, 통합성 및 공동운명성), 대상집단과 피험자의 유사성에 대한 지각, 전반적인 호감도, 사회적 거리감 및 감정은도 평정에 대해서 2(평가대상: 남한 대 북한)×2(점화수준: '한집단'점화 대 '중립'점화)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성격특질과 정서측정 문항에 대해서는 위에서 기술한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요인별로 2(평가대상: 남한 대 북한)×2(점화수준: '한집단'점화 대

‘중립’점화)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북한인을 평가할 때는 한집단 점화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남한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은 평가대상과 점화수준간의 상호작용 가설이다. 그러나 대상과 점화수준간의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한집단 점화를 시키고 북한인을 평가하게 했을 경우에 그 평가가 좋아진다면 가설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한사람을 평가하게 했을 경우와 북한 사람을 평가하게 했을 경우를 따로 분리해서 한집단 점화조건과 중립점화조건을 비교분석하였다.

집단실체성 지각(우리 나라의 통합성 공동운명성 유사성)에 대한 변량분석

우리 나라 사람들의 유사성, 우리 나라의 통합성 그리고 우리 나라 사람들의 공동운명성을 묻는 세 문항을 평균해서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실체성 지각에 대해서는 아무런 유의미한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또 남한사람을 평가할 때의 한집단 조건과 중립조건을 비교분석하고 북한사람을 평가할 때의 한집단 조건과 중립조건을 비교분석한 결과 아무런 유의미한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피험자 자신과의 유사성에 대한 변량분석

평가대상의 피험자 자신과의 유사성에 대한 평정에 대한 분석 결과, 대상집단의 주효과가 유의미했다($F(1, 96)=9.16, p<.01$). 즉, 남한사람($M=5.58$)을 북한사람($M=4.60$)보다 자신과 더 유사하다고 보았다. 또한 점화수준의 주효과가 유의미한 경향성을 보여서($F(1, 96)=3.21, p<.08$), 한집단 점화를 시켰을 경우($M=5.38$) 중립적인 점화를 시켰을 경우($M=4.80$)보다 평가대상을 더 자신과 유사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다. 남한사람을 평가할 때의 한집단 조건과 중립조건을 비교분석하고 북한사람을 평가할 때의 한집단 조건과 중립조건을 비교분석한 결과 아무런 유의미한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성격특질에 대한 요인별 변량분석

앞서 실행한 요인분석의 결과에 따라 요인별로 2(평가대상: 남한 대 북한)×2(점화수준: ‘한집단’점화 대 ‘중립’점화)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적·사교성’ 요인에서는 대상집단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F(1, 96)=27.01, p<.01$). 즉 ‘지적·사교성’요인에서 남한사람에 대한 평가점수($M=5.88$)가 북한사람에 대한 점수($M=4.55$)보다 높았다. 남한사람을 평가할 때의 한집단 조건과 중립조건을 비교분석하고 북한사람을 평가할 때의 한집단 조건과 중립조건을 비교분석한 결과 아무런 유의미한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배타성·폐쇄성’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평가대상의 주효과가 유의미해서($F(1, 96)=6.48, p<.05$) 남한사람($M=5.54$)을 북한사람($M=6.32$)보다 덜 폐쇄적이고 덜 배타적이라고 보았다. 또한 점화의 주효과가 유의미해서($F(1, 96)=13.35, p<.01$) 한집단 점화를 시켰을 때($M=5.37$) 중립적인 점화를 시켰을 때($M=6.49$)보다 남한사람 북한사람을 모두 덜 폐쇄적이고 덜 배타적이라고 보았다. 남한사람을 평가할 때의 한집단 조건과 중립조건을 비교분석하고, 북한사람을 평가할 때의 한집단 조건과 중립조건을 비교분석한 결과, 남한사람을 평가할 때 한집단 조건과 중립조건간의 차이가 유의미해서($F(1, 96)=6.68, p<.05$) 한집단 점화를 시켰을 때($M=4.98$) 중립적인 점화를 시켰을 때($M=6.10$)보다 남한사람을 덜 배타적이고 폐쇄적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북한사람을 평가하게 하였을 때도 한집단 조건과 중립조건간의 차이가 유의미해서($F(1, 96)=6.68, p<.05$) 가설대로 한집단 점화를 시켰을 때($M=5.76$) 중립적인 점화를 시켰을 때($M=6.88$)보다 북한사람을 덜 폐쇄적이고 덜 배타적으로 보았다. ‘배타성·폐쇄성’ 요인에 대해 점화수준별, 평가대상별 평균을 표 3에 제시하였다.

‘성실·순박요인’에서는 지역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여($F(1, 96)=4.64, p<.05$) 북한사람($M=5.51$)을 남한사람($M=4.88$)보다 더 순박하고 더 성실하다고 평가하였다. 대상별로 점화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아무런 유

표 3. ‘배타성·폐쇄성’요인에 대한 점화수준별 평가대상별 평정평균

	한집단	중립	계
남한	4.98	6.10	5.54
북한	5.76	6.88	6.32
계	5.37	6.49	5.54

의미한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전반적인 호감도에 대한 변량분석

평가대상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좋아할 만하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상집단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F(1, 96)=8.41, p<.01$). 즉, 남한사람($M=5.62$)을 북한사람($M=4.84$)보다 더 좋게 평가하였다. 남한사람을 평가할 때의 한집단 조건과 중립조건을 비교분석하고 북한사람을 평가할 때의 한집단 조건과 중립조건을 비교분석한 결과, 가설대로 남한사람을 평가할 때는 한집단 조건과 중립조건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북한사람을 평가할 때는 한집단 조건과 중립조건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경향성을 보였다($F(1, 96)=3.59, p<.07$). 즉, 북한사람을 평가할 때는 한집단 점화를 시켰을 경우($M=5.20$) 중립적인 점화를 시켰을 경우($M=4.48$)보다 북한사람을 더 좋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전반적인 호감도에 대한 지역별 점화수준별 평균이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변량분석

사회적 거리감을 묻는 다섯 문항(1.결혼이라도 하겠다, 2.혼인관계로 나와 인척이 되는 것을 환영하겠다, 3.이웃집 아이나 동생들과 놀게 하겠다, 4.데이트 상대로 삼지 않겠다, 5.한 집에 세를 주지 않겠다)을 평균해서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상집단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F(1, 96)=28.69, p<.01$). 즉, 남한사람($M=6.85$)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북한사람($M=5.33$)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보다 더 가깝다고 평가했다. 남한사람과 북한사람을 평가할 때의 한집단 조건과 중립조건을 비교분석한 결과 아무런 유의미한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정서측정 문항에 대한 요인별 변량분석

위에서 기술한 요인분석의 결과에 따라 요인별로

표 4. 전반적인 호감도에 대한 지역별 점화수준별 평균

	한집단	중립	계
남한	5.52	5.72	5.62
북한	5.20	4.48	4.84
계	5.36	5.10	5.62

2(평가대상: 남한 대 북한)×2(점화수준: 한집단 대 중립)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부적정서'요인에서는 대상집단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F(1, 96)=4.42, p<.05$). 이는 남한사람을 평가할 때($M=4.15$) 북한사람을 평가하게 할 때($M=3.59$)보다 더 불쾌하다고 평정하였음을 보여준다. 남한사람과 북한사람 평정의 각각에 대해 한집단 조건과 중립조건을 비교분석한 결과 아무런 유의미한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긍정적 정서'요인에서는 대상집단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F(1, 96)=55.44, p<.01$). 즉, 남한사람을 평가할 때($M=5.32$) 북한사람을 평가하게 할 때($M=3.67$)보다 더 유쾌하다고 평정하였다. 한집단 조건과 중립조건을 비교분석한 결과 아무런 유의미한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동정적' 정서요인에서는 대상집단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F(1, 96)=46.65, p<.01$). 즉, 북한사람을 평가하게 할 때($M=5.86$) 남한사람을 평가하게 할 때($M=4.04$)보다 더 불쌍하고 더 불편하고 더 슬프다고 평가하였다. 각 대상 집단에 대해 한집단 조건과 중립조건을 비교분석한 결과 아무런 유의미한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감정온도평정에 대한 변량분석

감정온도 평정에서는 점화수준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여($F(1, 95)=4.67, p<.05$), 한집단 점화를 시키면($M=54.14$) 중립적인 점화를 시켰을 때($M=45.78$)보다 감정온도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 남한사람을 평가할 때 한집단 조건과 중립조건을 비교분석하고 북한사람을 평가할 때의 한집단 조건과 중립조건을 비교분석한 결과, 가설대로 그리고 연구 1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북한사람을 평가할 때에만 한집단 조건과 중립조건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F(1, 95)=6.81, p<.05$). 즉 북한

표 5. 감정온도에 대한 지역별 점화수준별 평정평균

	한집단	중립	계
남한	54.28	51.79	53.06
북한	54.00	40.00	47.00
계	54.14	45.78	49.96

사람을 평가할 때 한집단 점화를 시켰을 때($M=54.00$)는 중립적인 점화를 시켰을 때($M=40.00$)보다 감정온도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 감정온도 평정에 대한 지역별 점화수준별 평균이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3. 회귀분석

본 연구의 주관심사는 아니지만 본 연구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흥미로운 측면은 과연 사회적 거리감과 같은 대상에 대한 행동의사가 대상의 특징에 대한 고정관념에 의해 보다 영향을 받는지 혹은 감정에 의해 영향받는가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성격특질요인들과 정서요인들(‘부정적 정서’요인, ‘긍정적 정서’요인, ‘동정적 정서’요인)을 예언변인으로 하고 사회적 거리감을 기준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을 때의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었다. 먼저 전체적으로 볼 때 성격특질에 대한 인지적인 측면보다는 정서적인 측면이 사회적 거리감을 더 잘 예언해주고 있다. 세부적으로 볼 때 ‘긍정적 정서’요인이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게 유의미하고, 다음으로 ‘부정적 정서’가 사회적 거리감에 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였다. 그리고 ‘지적·사교성’ 특질 요인이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였고, 또한 ‘동정적 정서’가 사회적 거리감에 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였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효과는 주로 북한사람에 대한 평정에서 나타났고 남한사람에 대한 평가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논의

연구 2의 결과, 조작적점검으로 실시한 피험자 자신

과 평가 대상간의 유사성 평정에서 비록 가설과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한집단 점화를 시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남한사람과 북한사람 모두를 자신과 더 유사하다고 보았다. 비록 조작적점검의 또다른 측정인 집단실체성 지각이 예상했던 바대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한집단’ 점화의 결과 자신과 평가대상간의 유사성을 더 크게 지각하게 되었다는 이러한 결과는 조작적점검이 어느 정도 성공한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배타성·폐쇄성’ 요인에서도 한집단 점화를 시켰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남한 사람을 모두 덜 폐쇄적이고 덜 배타적이라는 결과를 얻어, ‘한집단’ 점화의 효과를 보여 주었다. 그리고 북한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호감도평정과 감정온도 평정이 한집단 점화를 일으킨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긍정적으로 되어 가설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연구 2의 결과는 연구 1의 결과보다 본 연구의 가설을 더 강하게 지지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한집단점화는 북한사람들에 대한 감정온도뿐만 아니라 호감도와 특질평정에까지 영향을 미쳐 북한사람에 대한 평가를 보다 호의적으로 만들었다. 이와 같이 연구 2에서 한집단점화의 좀더 강한 효과가 나타난 것은 점화방법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연구 1에서 사용한 점화과제는 피험자들이 점화과제의 의미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는 물론 피험자들이 문장을 읽었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의미이지 무엇이 점화되었는지를 의식한다는 의미는 아니다)으로 실시하였지만 연구 2에서는 역하의식적인 점화방법을 사용하였는데, Bargh & Pietromonaco(1982)가 ‘역하의식적으로 범주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의식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 보다 가용한 범주의 활성화

표 6. 성격특질요인과 정서요인이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기 준 변 인	예 언 변 인					R ²	
	지적·사교성	배타성·폐쇄성	성실·순박성	부적정서	긍정적정서		동정불편정서
사회적 거리감β(전체)	.28**	.14	.02	-.28**	.35**	-.17*	.53**
사회적 거리감β(남한)	.09	-.11	.00	-.28	.22	-.08	.26*
사회적 거리감β(북한)	.24*	-.23*	-.09	-.58**	.23*	-.06	.65**

주. 사회적 거리감은 점수가 클수록 친밀한 관계를 나타냄.

* $p < .05$ ** $p < .01$

를 더 오래 유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바대로 이러한 방법이 보다 강한 효과를 자아내었을 수 있다. 또한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와 달리 한집단범주화를 위해 사용된 문항들이 보다 명확하게 한겨레 혹은 한민족임을 의미하는 문항들이었다.

연구 2의 결과, 역하의식적으로 점화된 한집단범주도 연구 1에서 의식적으로 유도된 한집단범주와 마찬가지로 주로 북한사람에 대한 호감도나 감정온도를 변화시켜 보다 긍정적인 태도변화를 일으킴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연구 2에서는 또한 한집단범주의 활성화가 대상을 덜 배타적이고 덜 폐쇄적이라고 지각하게 하여, 인지적 변화도 이끌어냄을 보여주고 있다. 과연 한집단범주의 활성화가 외집단에 대한 편견감소를 일으킬 수 있는 구체적 과정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 2에서 한집단 점화를 위해 사용된 일곱 단어들은 '하나'라는 의미가 포함되거나 우리 민족이 한민족임을 의미하는 단어들이었다. 그러나 이 단어들은 연구자의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 선정된 것들이다. 즉 그 단어들이 얼마나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는가 또는 그 단어들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한집단', '한범주'의 개념을 얼마나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사전조사를 하지 않은 것들이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수정해서 그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구 2에서 발견된 흥미있는 부차적 결과중의 하나는, 정서 요인과 성격특질 요인이 북한사람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을 본 결과, 긍정적 정서 혹은 부정적 정서와 같은 정서적인 측면이 '지적·사교성'요인과 같은 인지적인 측면보다 사회적 거리감을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김혜숙·오승섭(1999)이 북한과 통일관련 정책(예를 들어, "통일을 위해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와 북한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북한사람들에 대한 감정온도에 의해서 고정관념의 호의성에 의해서보다 더 잘 예언된다는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북한사람들에 대한 보다 긍정적 태도는 북한사람들에 대

한 남한사람들의 감정을 변화시킴으로써 달성될 수 있고, 그 하나의 방법이 '한집단'범주를 활성화시키는 것임을 시사해 준다.

종합 논의

본 연구에서는 '한집단'범주화가 외집단 성원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회정체이론의 주장을 다시 한번 지지해 주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상황적 요인에 의해서 우리의 사고 속에 활성화되어진 '한집단' 범주가 대상에 대한 평가를 보다 긍정적으로 하도록 함을 보여, 기존의 사회정체 이론의 연구들과 구분되는 새로운 현상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한집단'범주의 점화가 유발하는 것이 과연 대상에 대한 긍정적 감정인지 혹은 인지적 변화인지에 대해 검토하였고, 그 결과 한집단범주의 활성화는 인지적 변화보다는 보다 우세하게 감정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즉, 연구 1에서는 '한집단'범주의 점화를 시켰을 경우 중립적 문장들을 점화시킨 경우보다 북한사람에 대한 보다 긍정적 감정온도가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고, 연구 2에서는 '한집단'범주의 역하의식적 점화가 중립단어들을 점화시킨 경우보다 북한사람에 대해 보다 호의적 감정과 호감도 평정을 이끌어 내었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물론 보다 확실하게 이의 구체적 과정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들과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다. 이러한 범주의 활성화의 효과의 구체적 과정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 '개인'범주의 활성화나 혹은 하위범주의 활성화가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해 어떠한 측면의 변화를 일으키는가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사회정체이론에서 제안하는 재범주화의 효과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해 준다는 점에서 사회정체 이론의 확장과 수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이론적 의미 이외에도 통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 중요한 현실적 시사점을 준다. 즉,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나라 사람들, 특히 일반인들은 북한사람에 대해 미국사람들에 대해

서보다 덜 호감을 가지며 더 소원한 인간관계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남한사람들의 북한사람들에 대한 의식, 태도 및 편견은 통일 사회에서 남북한이 심리적으로 통합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서로 반목하도록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남한 사람들이 북한사람들에 대해 보다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한 방안이 사회의 여러 환경적·상황적 단서가 '한집단' 범주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혜숙·오승섭(1999). 북한 사람에 대한 대학생과 일반인의 고정관념, 감정과 태도: 외국인에 대한 태도와의 비교. *심리과학*, 8(1), 1-22.
- 전태국(1999). 한국통일의 사회통합적 전망과 과제. *한국사회학회 특별심포지움 「민족통일과 사회통합」 발표논문집*, 79-93.
- 정진경(1999). 남북한간 심리적 화합의 준비작업: 문화이해지. *한국심리학회 1999년도 연차학술대회 발표초록집*, 222-224.
- 차재호(1992). 외국인에 대한 학생 및 성인의 태도.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 지원 과제 보고서*.
- Bargh, J. A., & Pietromonaco, P.(1982). Automatic information processing and social perception: The influence of trait information presented outside of conscious awareness on impression 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437-449.
- Billig, M.(1985). Prejudice, Categorization, and Particularization; From a perceptual to a rhetorical approach.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5, 79-103.
- Brown, J. D., Collins, R. L., & Schmidt, G. W. (1988). Self-esteem and direct versus indirect forms of self-enhanc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445-453.
- Devine, P. G.(1989). Stereotypes and prejudice: Thier automatic and controlled compon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5-18.
- Gaertner, Mann, Dovidio, Murrell & Pomare.(1990). How does cooperation reduce intergroup bia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692-704.
- Kelly, C.(1988). Intergroup differentiation in political context.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7, 319-332.
- Strull, T. K., & Wyer, R. S., Jr.(1980). Category accessibility and social perception: Some implications for the study of person memory and interpersonal judge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841-856.
- Tajfel, H.(1970). Experiments in intergroup discrimination. *Scientific American*, 223, 96-102.
- Tajfel, H.(1981). Human groups and social categories; *Studies in social psychology*,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jfel, H., Billig, M., Bundy, R. P., & Flament, C. (1971). Social Categorization and intergroup behavio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 149-177.
- Taylor, S. E., Crocker, J.(1981). Schematic bases of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In E. T. Higgins, C. P. Herman, & M. P. Zanna(Eds.), *Social Cognition: The Ontario Symposium*(Vol. 1, pp. 89-134). Hillsdale, NJ: Erlbaum.
- Taylor, S. E., Fiske, S. T., Etcoff, N. L., & Ruderman, A.(1978). Categorical bases of person memory and stereoty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778-793.
- Turner, C. K.(1988). Don't blame memory for people's faulty reports on what influence thier judgmen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4, 622-629.
- Turner, J. C.(1981). The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behavior. in J. C. Turner &

- H. Giles(Eds.), *Intergroup behavior*(pp. 66-101).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urner, J. C.(1985). Social categorization and the self-concept: A social cognitive theory of group behavior. In E. J. Lawler(Ed.), *Advances in group processes*(Vol. 2, pp. 77-121). Greenwich, CT: JAI Press.
- Turner, J. C., Brown, R. J., & Tajfel, H.(1979). Social comparison and group interest in ingroup favoritism,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9, 187-204.
- Tversky, A., & Kahneman, D.(1973). Availability: A heuristic for judging frequency and probability. *Cognitive Psychology*, 5, 207-232.
- Tversky, A., & Kahneman, D.(1974). Judge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s and biases. *Science*, 185, 1124-1131.

The Effect of Priming of the 'One-group' Category on the Evaluation Regarding North Koreans

Yun-Jae Yu and Hai-Sook Kim

Ajo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the conscious(Experiment 1) and the subliminal (Experiment 2) priming of the 'one-group' category led people to evaluate the North Koreans more positively. The results of the two experiments showed that the priming of the 'one -group' category made people evaluate on the feeling thermometer ratings(Experiment 1 · 2) and the likability ratings(Experiment 2) towards North Koreans more positively as well as the trait ratings(Experiment 2).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activation of the recategorized superordinate category can make the evaluation toward the outgroup members more positively, mainly through changing the emotions toward the target. We also discussed about the important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results.

부록 1 : 연구 1에 사용되었던 점화과제

1) ‘한집단’점화조건

다음에 제시되는 말들은 뜻이 통하는 문장을 이루기에는 그 순서가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 순서를 바로 잡아 괄호 안에 그 번호대로 나열해보십시오

예) 한민족이다 단군이래로 우리나라는
 1 2 3 (3, 2, 1)

- 1) 역사이다 단일민족의 우리 나라의 반만년 역사는
 1 2 3 4 ()

- 2) 외국에 있는 나라 밖에서도 동포들은 단결력을 보여준다
 1 2 3 4 ()

- 3) 보고된다 폐암의 발생률을 증가시킨다고 흡연이
 1 2 3 4 ()

- 4) 한민족임을 나타내주는 한복은 우리고유의 문화이다.
 1 2 3 4 ()

- 5) 충분하다 우리민족을 한글의 사용은 하나로 묶어주기에
 1 2 3 4 ()

- 6) 모여 살지만 여러 민족이 미국은 단군이래 우리 나라는 한민족이다
 1 2 3 4 5 6 ()

- 7) 하루 세 번 치과의사들은 이 담기를 권장한다
 1 2 3 4 ()

- 8) 미국에서 보여주었다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뮤지컬 명성황후는
 1 2 3 4 ()

- 9)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중요성이 스트레스예방의 요즘은
 1 2 3 4 ()

- 10) 전국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 있다 우리 나라 전통민요 아리랑은
 1 2 3 4 ()
- 11) 세계 여러 나라들을 IMF로 인한 금 모으기는 깜짝 놀라게 하였다 우리민족의 단결력을 보여주어
 1 2 3 4 ()
- 12) 4계절이 뚜렷하다 모두 우리 나라의 팍도감상은
 1 2 3 4 5 ()
- 13) 우리민족은 어려울 때마다 보여주었다 굳은 단결력을
 1 2 3 4 ()
- 14) 개 지붕쳐다보기 닭 쫓던
 1 2 3 ()
- 15) 6800달러수준으로 7년 전 수준인 떨어졌다 우리 나라의 1인당국민소득은
 1 2 3 4 ()
- 16) 우수하였다 여자단체전에서 남북한 탁구 단일 팀이 1990년에
 1 2 3 4 ()
- 17) 소유하고 있는 나라는 독자적인 워드프로세서를 MS-word외에 우리나라뿐이라고 한다.
 1 2 3 4 ()
- 18) 융합을 중시해왔다 유교의 영향을 받아 우리민족은 집단성원들끼리
 1 2 3 4 ()
- 19)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없어졌다 지역의 개념이 우리나라는
 1 2 3 4 ()
- 20) IMF의 간섭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1997년 말부터
 1 2 3 ()
- 21) 통일이 되어야 한다 독일처럼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나라도
 1 2 3 4 ()

- 6) 하루 세 번 치과 의사들은 이 닦기를 권장한다
1 2 3 4 ()
- 7) 나무란다 겨 묻은 개 똥 묻은 개가
1 2 3 ()
- 8) 살지 못한다 밥만 먹고 사람은
1 2 3 ()
- 9) 입안에 하루라도 가시가 돋는다 책을 읽지 않으면
1 2 3 4 ()
- 10) 정보제공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현대인들에게 인쇄기술의 발달은
1 2 3 4 ()
- 11) 약사에게 진료는 약은 의사에게
1 2 3 4 ()
- 12) 보고된다 폐암의 발생률을 증가시킨다고 흡연이
1 2 3 4 ()
- 13) 지구의 오존층 파괴로 기온이 올라간다.
1 2 3 4 5 ()
- 14) 일년 중 날이 다 동지는 밤이 가장 긴
1 2 3 4 ()
- 15) 멀어진다 마음에서도 멀어지면 눈에서
1 2 3 4 ()
- 16) 쓴다 점순 같이 개 같이 벌어서
1 2 3 4 ()
- 17) 기상이변으로 인한 엘리뇨 라니냐 등 심각하다 피해가
1 2 3 4 ()
- 18) 사람은 판단하는 걸만보고 경향이 있다
1 2 3 4 ()

19)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중요성이 스트레스 예방의 요즘은
1 2 3 4 ()

20) 100도를 물의 온도는 넘지 못한다
1 2 3 ()

21) 개 지분쳐다보기 닭 쫓던
1 2 3 ()

22) 대머리의 발병이 각종 공해 때문에 경우가 많다 조기에 나타나는
1 2 3 4 ()

23) 폭증하고 있다. 사용자가 이동전화의
1 2 3 ()

24) 없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1 2 3 ()

25) 천리를 간다 말이 발 없는
1 2 3 ()

26) 위의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은 어떤 것입니까? 아래 빈칸에 적어주십시오
()